

Korean Trail 26th Story

## 부안 변산 마실길 바닷길 걸으며 변산반도 절경에 취해볼까

부안 변산 마실길은 밀물 때와 썰물 때의 길이 다르다. 밀물 때는 바다였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바닷길을 걸으며 변산반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적벽강과 채석강, 격포항을 품고 있는 3코스의 인기가 높다. 걷는 구간의 풍경이 빼어나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부안 변산 마실길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송림과 대나무로 우거진 숲길과 바닷길을 한꺼번에 걸을 수 있다. 마실은 '마을'을 뜻하는 사투리로 '마실길'은 옆집에 놀러갈 때 걸던 고살길이다. 지난 2009년 10월에 조성된 변산 마실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1년 '해안누리길'로 뽑힌 데 이어, 2012년에는 '전국 5대 명품길'로 선정됐다.

변산 마실길의 해안코스는 모두 8개 코스로 나뉜다. 1코스(조개미 패총길, 새만금전시관~송포 5km), 2코스(노루목 상사화길, 송포~성천 6km), 3코스(적벽강 노을길, 성천~격포항 7km), 4코스(해남이 술섬길, 격포항~술섬 5km), 5코스(모항갯벌 체험길, 술섬~모항갯벌체험장 9km), 6코스(쌍계재 아홉구비길, 모항갯벌체험장~왕포 11km), 7코스(곰소 소금밭길, 왕포~곰소염전 12km), 8코스(청자골 자연생태길 곰소염전~부안자연생태공원 11km)이다. 해안누리길은 새만금방조제에서 격포항까지로, 코스가 완만해 누구나 무리 없이 즐기기에 좋은 길이다. 마실길은 밀물 때와 썰물 때의 길이 다르지만 썰물 때를 골라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닷길을 걷는 것이 좋다. 바다 내음이 상쾌하고 해안 절경이 빼어나다.

### 굽이굽이 절경, 마실길 3코스

성천포구에서 격포항까지 3코스는 변산 마실길의 백미다. 길은 좁은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가는데 변산반도의 명소인 적벽강(赤壁江)과 채석강(彩石江), 그리고 바닷길이 드러나는 하섬과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지를 품고 있다.

3코스 들머리는 성천포구다. 포구 맨 끄트머리에서 하섬 전망대까지 산비탈 오솔길이 이어진다. 오솔길에는 '잘 왔네 마실길'이라며 근심걱정 있어 버리세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 길 옆엔 철거되지 않은 녹슨 철조망이 그대로 깔려 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걷다보면, 한국판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섬 전망대다. 하섬은 10만㎡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매일 음력 보름과 그믐날에는 길이 1km, 너비 30m의 바닷길이 생겨 걸어서도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아름다운 전설이 서려



있는 하섬은 '바다에 떠 있는 연꽃 같다' 하여 연잎 '하(漣)'를 따서 하섬이라는 말도 있고, 새우가 웅크린 모양을 하고 있어 새우 '하(鰕)'자를 써서 하섬이라고도 한다. 옛날 옛적에 육지에서 노부모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 부모님이 탄 고깃배가 하섬까지 떠내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용왕님께 빌고 빌어 용왕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하섬 전망대부터 길은 변산해변도로와 해안 숲길, 바닷길이 만나고 헤어지며 격포항까지 이어진다. 한 사람이 걸을 정도로 좁은 오솔길은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바다와 함께 한다. 숲 속을 나와 해변도로변에 있는 반월마을 안내센터에 도착하면 회화나무 고목이 탐방객을 반긴다. 고목 앞 팻말에는 "500여 년 전 부안 현청 동헌에 심어졌던 것으로 수령이 다하여 그 몸통을 수거 보관하다가 변산 마실길 반월 안내소 개소를 기념으로 비록 수명을 다한 고목이나 향토의 애환을 지켜온 수훈을 변산 마실길의 수호신으로 삼아 탐방객의 안녕을 빌고자 세워 두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반월마을 안내소 옆에 위치한 정자 쉼터는 제법 시원한 풍경 전망대다. 아름다운 서해바다와 새만금방조제, 하섬, 위도, 고군산군도 등을 두 눈 가득 담을 수 있다. 이곳에서 숲길과 해안 일주도로를 번갈아 걷다보면 격포자연관찰로와 만난다. 썰물 때만 적벽강 몽돌해안관찰지를 자박자박 걸을 수 있는데, 걷는 맛이 각별하다. 해안관찰지를 지나면 중국의 적벽강만큼 경치가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는 적벽강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검붉은색을 띤 암반으로 이뤄진 적벽강의 해안은 한 폭의 그림 같다. 특히 석양 무렵 바위 단애는 진홍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적벽강 해안가에서 계단을 오른 뒤 벼랑 위를 따라 '시누대'라고 하는 해장죽(海藏竹) 길을 따라가면 수성당이 있다. 수성당은 딸 여덟자매를 낳아 일곱 딸을 팔도에 한 명씩 시집보내고 막내 딸만 데리고 살면서 서해바다를 다스렸다는 개양할머니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 수성당을 내려와 마실길을 다시 걸으면 후박나무 군락지(천연기념물 123호)가 나온다. 해안가 200m에 걸쳐 모두 10그루의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1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채석강. 2 성천포구의 마실길 종합안내소. 3 해장죽 숲 터널. 4 마실길 반월 안내소. 5 바다 전망이 빼어난 하섬 전망대.

지역이 후박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다. 죽막마을과 대명리조트를 지나면 격포해수욕장과 채석강에 발길이 닿는다. 1.5km의 해안절벽인 채석강은 중생대 백악기(약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퇴적암으로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올린 것 같다. 자연이 빚은 해식애(海蝕崖)를 관찰하면서 채석강을 돌아나가면 3코스 종착지인 격포항이다. 1986년에 1종항이 된 격포항은 위도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항이다. 사계절 싱싱한 횡간이 넘쳐나는 격포항은 적벽강처럼 해미도 장관이다.



① 3코스 들머리인 성천포구에서 녹슨 철조망이 남아 있는 산비탈 오솔길을 오르면 변산해변도로 치벽과 만난다. 이곳에서 변산해변도로로 올라서면 하섬 전망대다.



② 3코스 마실길은 기존 마실 다니던 길을 그대로 활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마실은 '마을'을 일컫는 사투리다.



③ 마실길을 따라가면 해안 숲길과 변산해변도로, 그리고 해수욕장과 해안 절벽이 만나고 헤어진다. 숲길은 약간의 오르막만 있을 뿐 숨이 턱까지 차는 가파른 오르막은 없다.



④ 나무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들리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걸다 보면 출렁다리와 만난다.



⑤ 적벽강은 송나라 소식(소동파)이 즐겨 찾던 곳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빠지면 퇴적암과 화산이 섞여 독특한 무늬를 형성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길 나서기 전에 물이 들고 나는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⑥ 해안단층 절벽 위에 있는 수성당은 칠산 앞바다를 관장하는 개양 할미를 모신 사당이다.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제사를 올리고 풍어와 무사고를 빌었다고 한다.



⑦ 격포해수욕장과 이웃한 채석강은 자연이 빛은 기암괴석으로 수만 권의 책을 쌓아올린 것처럼 보인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즐겨 찾던 중국의 채석강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⑧ 마실길 3코스 종착지인 격포항은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포구다.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게 채색하는 해넘이도 장관이다.



# 변산 자연휴양림 숲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는 색다른 경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에 위치한 변산 자연휴양림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휴양림으로, 전 객실에서 아름다운 서해가 눈앞에 펼쳐진다.



객실은 원룸형·투룸형·원룸형 복층 등 다양하고, 전 객실에서 아름다운 서해를 감상할 수 있다.

국내 첫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인 변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1월 개장했다. 대부분 다른 휴양림과 달리 숲과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지 가장 인기가 많은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변산 자연휴양림은 올 상반기 운영객실 수 대비 이용량을 나타내는 가동률이 93%로, 전국 38개 국립 자연휴양림 중 1위를 차지했다.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는 변산 자연휴양림은 마실길 해안 탐방로 8개 구간 중 6코스 '쌍계재 아홉구비길'에 위치해 있다. 휴양림에서 5코스의 모항까지는 2.3km, 7코스인 곰소염전까지는 10.7km이다.

서해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변산반도 해안 일주도로를 타고 가다가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간판을 보고 해안 쪽으로 내려서면 바로 매표소다. 이곳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방문자 안내소, 산림문화휴양관, 수영장, 생태습지관찰원, 주차장이 나온다. 숙소인 산림문화휴양관은 2동으로 원룸형(5인실), 투룸형(7인실), 원룸형 복층(다락방, 9인실) 등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췄다.

최근 개장해 객실이 깨끗하고, 아영장이 없는 대신 전 객실에서 생태습지관찰원과 아름다운

Tip

주말 예약 추천제로 진행

산림청은 9월부터 선착순 예약 방식을 폐지하고 주말(금·토)과 법정공휴일 이용은 추천제로 전환했다. 단 휴양림 예약자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했다. **사용기간** 다음 달 1일 ~ 말일 중 **예약 가능건수** 1개 아이디당 1건 신청 **접수** 매일 4월 09:00 ~ 9월 18:00 **추첨·발표** 매일 10일 16:00 **결제** 매일 10일 16:00~14일 18:00 **미당첨과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예약 개시일 매일 15일 09:00)

이용 방법과 요금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다. 예약은 인터넷(www.huyang.go.kr)으로만 가능하다.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침구, 식기, 밥솥 등 객실 내 비품이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5인실 7만7천원 / 4만2천원(성수기와 주말/ 비수기 평일), 7인실 9만4천원 / 5만3천원, 9인실은 10만7천원 / 6만3천원.

문의 변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63-581-9977

가는 법

▷ 서울, 인천, 대전 방면

서해안 고속도로 → 부안 I.C → 새만금방조제 → 변산 교차로 영진·격포 방면으로 우회전 후 계속 직진 → 모항 → 변산자연휴양림

▷ 부산, 광주, 대구 방면

서해안 고속도로 → 줄포 I.C → 곰소항 → 마동삼거리 변산·격포 방면으로 좌회전 → 2km 지점 U턴 → 변산자연휴양림



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날이 어둑해지면 휴양림 맞은편인 고창 심원면의 불빛이 오징어 어선의 집어등처럼 황홀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보일러의 원료인 목재펠릿은 나무 톱밥 등을 압축해 만든 작은 원통 모양의 청정 연료다.

2천600m<sup>2</sup> 규모의 습지생태관찰원에서는 갯패랭이, 갯섬바귀, 노란 꽃창포, 부들, 갈대, 세모고랭이, 해란초, 갯잔디 등 다양한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으로는 솔방울 숲속친구들 만들기, 변산반도의 특산물인 천일염에 함초, 뽕잎, 복분자를 넣은 삼색 소금 만들기가 있다. 특히 '나는 누구일까', '누구 그림자인가요', '누구의 똥인가요'를 테마로 한 방문자 안내소의 생태교육자료가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똥인가요'는 족제비, 삿, 너구리, 수달, 다람쥐, 멧토끼, 청솔모, 오소리, 고슴도치,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등 12마리의 똥 모양을 보고 동물을 알아 맞추는 놀이다. 휴양림 뒷편으로 솔향기와 피톤치드가 가득한 솔바람 숲길 3km가 조성되어 있다. 숲길 곳곳에서 서해와 휴양림 전경이 내려다보인다. ①



휴양림 안에 다양한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생태관찰원과 수영장, 숲길이 있다.

